

反통합파 투표 보이콧...내달초 전대 계기 '분당의 길' 가나

당무위 '통합 전당원 투표' 실시 의결...국민의당 갈등 최고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임을 연계한 전당원투표 실시를 당무위가 의결함에 따라 국민의당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당장, 전당원투표 결과를 둘러싸고 통합 찬반 진영이 정면충돌한 뒤, 1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계기로 분당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이웨이=안철수 대표는 연일 통합행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당무위 모두발언에서 "(전당원투표를 통해)통합 찬성이 확인되고 재신임을 받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며 "전당원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당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도 "몇몇 호남 중진들의 극렬한 반대가 당원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당원 투표 결과, 통합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그동안 통합에 반대해 왔던 호남 중진들은 탈당 등 거취를 결정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관한다.

안 대표 진영에서는 당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 찬성과 안 대표 재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통합 전대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중립과 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송기서, 권은희, 김관영 의원 외에도 일부 호남 의원들은 '분열은 파국'이라는 명분 아래, 미묘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남 노 의원은 "전당원투표에서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당원 투표 참여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통합 반대 진영에서 전당원투표 보이콧에 나서며 따라 최악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20%에도

安 "새해초부터 통합 절차 진행"

친안진영 반대여론 무마 나서

일부 호남의원 흔들리는 모습도

반안진영 "투표·전당대회 저지"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통합은 물론 안 대표 재신임 문제도 정당성을 찾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안 대표 진영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투표 독려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력행사=당내 통합 반대 진영에서는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실력행사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전당원 투표 보이콧에 나서려는 것은 물론, 전당대회 개최를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통합 반대 진영에서는 통합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안 대표에 대한 집중 포격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 반대 여론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의 전일 의총 불참에 대해 "자기가 발표해놓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 도망친다면 그건 '도철수'(도망가는 안철수)"라고 비판했다.

전정배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가 의원 총의를 무시하고 합당 방법을 발표한 것은 유신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무위에서 "당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의견을 넓히는 것은 속된 강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도 "전당원 투표야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안철수의 리더십도 땅에 떨어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자 참석한 당무위원들과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통합 반대 진영에서는 전당원투표 거부 운동을 강력하게 펼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경우 33.3% 이상의 투표율을 얻어야 결과가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투표율이 33.3%를 미달한다면 전당원투표 결과

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통합 반대파의 입장이다.

전당대회도 무산시킨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가 전당대회를 소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전대 개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른정당 "통합 환영"

공식 교섭창구 가동

바른정당이 21일 공식통합 기구를 만들기로 하며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통합 본격 추진에 대해 화답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안 대표가 미래를 위한 개혁정치를 하겠다는 통합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를 위해 오신환·정운천 의원을 투톱으로 하는 교섭창구를 즉각 가동기로 했다. 두 의원은 유승민 대표 체제기 중도보수대통합을 내걸고 출범한 이후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한 당내 매신저 역할을 해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대당 통합에 앞서 양당이 설치할 통합기구 설치 등도 서서히 논의되고 있다"며 "교섭창구로 나설 두 의원에게 통합과 관련한 로드맵을 국민의당과 조율하도록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서도 창구를 이제 정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식적인 교섭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당 관계자는 "통합의 배에 오르려면 우리와 함께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성·육설 충돌...反통합파 당무위원 "원천무효" 집단퇴장

아수라장 된 국민의당 당무위

21일 오후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과파의 반대파 간 고성과 육설이 오가며 대치하는 격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당무위는 안철수 당 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직을 걸고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관한 절차적 과정을 밝히기 위한 회의이다.

당무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 소집됐다. 안건이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힌 전당원 투표 관련 사안에서 당무위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회의장 앞에는 찬성파로 분류되는 친안계와 반대파인 반안계가 대치했다. 회의장 문 앞을 당직자들이 막아섰고 반대파 당원들은 이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회의 공개 여부부터 양측간 다툼이 시작된 것이

회의장 밖 친안·반안 정면대치

안철수 "변화에 힘 실어달라"

박주선 "호남 없는 통합 속빈강정"

다.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근거 없이 (회의장을) 막는 행위 자체가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당직자들은 꾀쩀도 하지 않았다. 당직자들의 철통방어 탓에 현역 국회의원들도 출입이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당무위에서 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전당원 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당원과 당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소모적이다 못해 파괴적이기까지 한 이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전

당원투표 제안의 당위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 몇 주간 당대표 재신임을 거론하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재신임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표를 향해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당무위원 여러분들이 국민의당 변화에 힘을 주시기 바란다. 저도 혼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 순서, 전날 안 대표 기자회견 관련 해명 요구, 회의 진행자의 적절성 등을 두고 언쟁이 이어졌다.

최경환 의원은 당무위 중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당무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 취재진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직자나 당원들은 들어올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본인의 재신임을 묻는데 당사자인 안 대표가 사회를 보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니 본인은 투표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설

명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기자들에게 "당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통합을 결사반대하면서 지지기반 이탈 등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의견을 넓히면 속된 강정이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혀를 찼다.

통합 반대파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당무위는 안 대표가 제안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지르기로 의결했다.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는 조배숙·유성엽·이상돈·박주현·최경환·장정숙·윤영일·배준현·양미경·임정엽·장성배 등 당무위원들은 전당원 투표 의결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합당에 관한 사항은 당 최고결정기관인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이다. 당무위에 상정된 안건은 당의 헌법인 당헌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전당원 투표 거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00년 수령 소나무 숲, 그 향기 그윽한 그린장례문화원!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예(禮)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 저렴한 장례비용, 소문난 음식 맛, 실시간 정산 시스템
2. 고객님이 찾기 쉽고, 주차가 편리한 대형주차장 완비
3. 감동적인 의전과 고급 호텔수준의 명품장례식장
4.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는 그린장례문화원



신구
전속모델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김영관 회장

예기치 못한 사고시 그린을 이용하시면, 그린장례문화원의 경조위로금과 특별의전으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